홀트소식

SPRING 2025 — **VOL.216**

일터에서 빛나는 이름 "우리는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소식

www.holt.or.kr

봄이야기

이번 봄호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자의 일터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깊은 울림과 용기를 전해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의 날이 지닌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관련 기사 4~9쪽)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사
정용근(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린다백(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스티브 모리슨(한국입양홍보회 이사)
유희정(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최재성(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사
장재훈(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산하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2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홀트학교	031-915-2913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53-756-0183
대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42-586-1983
인천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32-424-0145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	032-277-1391
홀트미추홀	032-548-160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 해외사업장 (몽골,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02-331-7040

후원자님, 지구와 자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종이 소식지' 대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수신'으로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자원을 아끼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식지 수신 전환 방법 : 후원자 상담센터(02-331-7073~7076)로 연락 주세요.

Contents

장애인의 날 특집 장애인복지
04 ① 직장인의 꿈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10 ② 편견 없는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발걸음, 고양라디오

아동·청소년복지
12 ①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에 함께하겠습니다
15 ② 우리 집에 희망이가 찾아왔어요! '희망드림 출산응원박스'
16 ③ 준이의 단어 '도전'

한부모가족복지
18 ①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Re-new!
20 ② 함께 만드는 변화, 한부모의 든든한 지원군
22 ③ 션 홍보대사와 함께 달리며 한부모가정 응원해요!

지역사회복지
24 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동네친구 프로젝트'
27 ② 1인가구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여행 프로젝트'

국제개발협력
30 네팔 여성의 빛나는 내일 'WAWCAS'

캠페인
32 텅 빈 집에 홀로 남게 된 초원이의 하루

나눔스토리
34 ① 기업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합니다
36 ②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임직원의 'My Marriott Day'
38 ③ 섬김과 겸손의 의학자 임영진 교수가 말하는 참된 사랑
40 ④ 나눔의 본보기로 살아가는 기쁨
42 ⑤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진 나눔과 사랑

44 HOLT NEWS

48 2024년 운영결산보고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216호(계간) **발행일** 2025년 4월 25일 **발행인** 김정오 **편집인** 신미숙
발행처 나눔마케팅본부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홈페이지 www.holt.or.kr
후원문의 02-331-7073~6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좋은 사연·좋은 제언 pr@holt.or.kr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 산하시설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취업 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근로자 3인을 만났습니다. 취업을 향한 노력이 성공의 결실을 맺은 경험을 들어보고, 자신의 삶을 개척한 이들의 자립을 응원해 봅니다.

글 홍보팀 정진숙 **사진** 홍보팀 남지인

장애인의 날 특집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전

직장인의 꿈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24.12.30.)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 257만 4,398명 중 취업자는 33.8%인 87만 1,339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66.2%는 미취업 상태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4%, 고용률은 29.1%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트보호작업장 홀트도예공방 운영

홀트강동복지관 바리스타 자격증반

홀트보호작업장의 직업재활 서비스

훈련생 24명 / 근로인 33명

홀트보호작업장은 다양한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 잠재력 파악을 위한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일상생활 및 자기 관리능력 발전을 위한 작업 전 훈련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직업 적응훈련 △작업기술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홀트보호작업장 내에 카페테리아, 제과제빵, 임가공, 홀트도예공방을 운영하며 이용인들에게 △이론교육과 커피제조교육 △제빵 관련 전문 생산기술 훈련 △판매 및 고객응대교육 등 직무능력을 키워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배치를 지원합니다.

고양보호작업장의 근로인 전환 지원

훈련생 13명 / 근로인 20명

고양보호작업장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습니다. 훈련생을 대상으로는 △일상생활·사회적응·직업기능향상훈련 △직업훈련 교사의 직무지도를 통한 조립 및 포장 작업훈련 △작업 및 과정 평가로 이루어진 작업활동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근로인에게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카페 업무 및 작업장 임가공 업무를 맡게 되며,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직무보수교육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워크숍, 현장견학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업교육 '잡클릭스'

구직 상담자 92명 / 취업자 38명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인 발달장애인 고용 연계 프로그램 '잡클릭스(Job-Click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장애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잡클릭스는 보조기기 관리사와 공유형 전동기 관리사 양성과정으로 장애인들이 기술을 배우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수동휠체어 관리를, 공유형 전동기 관리사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자전거 관리를 훈련받고 훈련을 마친 참여자들에게는 ㈜지바이크 등의 입사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양보호작업장 조립 및 포장 직업훈련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잡클릭스' 교육 수료

"홀트아동복지회의 다양한 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스팀세차원으로 근무하는 홀트학교 전공과 졸업생

장애인 거주시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홀트강동복지관, 직업능력 향상 지원

바리스타 자격증 20명 / 정보화 자격증 2명 취득

홀트강동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 지원사업으로 바리스타 자격증과 정보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B.T.S(Barista Training School)'는 복지관 내 장애인 일자리 카페 5호점 '발랄카페'에서 실습 이수과정을 진행하며 실습 완료 후에는 ㈔월드커피바리스타협회의 실기 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정보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H-net'은 한글 프로그램 활용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서작성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DIAT) 취득을 지원합니다.

홀트학교 전공과 재학생의 현장실습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 지원 서비스

2024년 기준 취업자 수 11명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인 홀트일산복지타운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홀트일산요양원에서는 장애 특성에 맞춘 다양한 재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및 일상생활 지원 외에도 사회·경제·문화여가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균형 잡힌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완전한 독립을 목적으로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체험홈)을 운영하며, 장애인 생활지도교사 및 취업 지원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경제관념 함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트학교 전공과

2023년 입학생 11명 전원 취업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과 취업을 준비하는 홀트학교의 2년제 전공과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바리스타, 티마스터, 용역서비스, 조립포장, 원예재배, 행정보조, 급식보조 등 체계적인 기능훈련이 필요한 전문교과와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교양교과, 동아리, 학생자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내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삼오전자, 유기농 전문 베이커리 업체인 소울베이커리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을 통한 사업체 현장실습을 지원하며 특히, 졸업반 학생들은 직업 생활 및 직업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특수교육 연계형 복지 일자리 실습을 지원합니다.

친절한 직원분들과 60, 70세까지 오래오래 직장생활 하고 싶어요.

장애인 근로자 인터뷰 1

㈜지바이크 김포캠프 근무
이호일

2024년 9월부터 ㈜지바이크 김포캠프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호일 씨(언어장애·발달장애, 48세)는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및 전동자전거)에 장착되는 배터리를 청소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바이크는 전국 30개 도시에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지쿠터'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호일 씨는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의 추천으로 3주간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호일 씨는 배운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했고, 덕분에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호일 씨의 취업에는 복지관 직업지원팀의 적극적인 뒷받침도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현장실습과정을 통해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김혜수 복지관 직업지원팀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훈련하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잡클릭스'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의 고용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호일 씨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영만 ㈜지바이크 김포캠프 정비파트장은 "호일 씨는 책임감이 매우 강해서 항상 30분 전에 출근하고 일도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수거된 배터리가 캠프로 들어오기 전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배터리 충전소의 자리를 비워놓고, 일의 순서도 잘 지킵니다"라고 호일 씨를 칭찬합니다. 정도희 ㈜지바이크 김포캠프장은 "앞으로도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라며 장애인 포용적 기업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호일 씨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캠프장님, 정비장님 등 친절한 직원분들과 함께 60, 70세까지 오래오래 직장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앞으로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손님들이 칭찬해 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장애인 근로자 인터뷰 2

커피 블로썸 근무
이정후

고양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카페 '커피 블로썸'의 바리스타 이정후 씨(발달장애, 34세)는 카페 1호 근로인입니다. 2011년 21세의 나이에 복지관에서 문을 연 재활매점 'CAMEO'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21년부터 새롭게 운영된 보호작업장의 커피 블로썸에서 근무하며 현재 14년 차 직장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양보호작업장의 이주현 직업훈련교사는 "정후 씨가 워낙 꼼꼼한 성향이라 혼자서도 주문받은 음료를 제조하고 업무 마감도 수월하게 해낸다"며 "직무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잘 지키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정후 씨는 2012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바리스타 자격증 강좌를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정후 씨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보호작업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훈련과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교사는 "카페 업무가 서비스직이다 보니 서비스 예절교육, 위생교육 등의 필수교육과 근로인 직무보수교육 등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각 회기마다 근로인 직무보수교육을 진행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교육받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정후 씨는 일하면서 손님들이 칭찬해 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트나 나뭇잎 모양의 라테아트가 제 특기예요. 직접 그린 라테아트를 보고 손님들이 멋지다고 감탄하시죠." 정후 씨의 수준급 라테아트 실력은 근로인 직무보수교육 참여와 유튜브를 찾아보며 열심히 연습한 덕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서두르지 않고 순서대로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서 부자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정규직이 되어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때 정말 기뻤어요.

장애인 근로자 인터뷰 3

LG디스플레이 나눔누리 근무
서유정

서유정 씨(지적장애, 22세)는 LG디스플레이 자회사인 나눔누리(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며 2년 차 직장인으로서 활발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정 씨의 하루는 아침 6시 30분에 홀트일산복지타운 303호를 나서며 시작됩니다. 작년까지 샤론동에서 생활하다가 자립형 체험홈인 303호로 이사한 후, 유정 씨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체험홈에서 유정 씨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홀트일산복지타운의 이희지 생활지도교사는 유정 씨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어 듣는 재미가 있다고 전합니다. 유정 씨가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큰 만큼 장애인 고용과 업무 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애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작업반장도 배치되어 있어 업무는 물론 자투리 시간 관리까지 세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정 씨는 홀트일산복지타운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정 씨는 "면접 준비를 하며 연습했던 예상질문이 나와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할 수 있었고,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면접 후 실습 기간을 거친 유정 씨는 6개월 계약직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정 씨는 회사에 잘 적응해 좋은 동료들과 어울리며 사회 경험을 쌓고, 경제 개념도 배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유정 씨는 피아노 반주법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 일을 하면서 여가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직장인"이 되고 싶다며, 회사에 오래오래 다니겠다고 다짐합니다.

‘고양라디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2018년부터 ‘편견 없는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상 이야기부터 유용한 복지 정보 제공까지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스마트복지기획팀 박수진

편견 없는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발걸음

고양라디오

장애인의 날 특집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공간

2024년 경기마을미디어공모전 우수 활동상 수상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통 지원사업 참여

고양라디오는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시민 제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양라디오가 더 많은 청취자에게 다가갈 기회가 되었습니다.

OBS 채널을 통해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된 고양라디오는 어떤 방송을 제작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기존에 진행해 온 장애인 복지 정보나 지역사회 이야기 외에, 청취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상하던 중, 장애인의 삶을 더욱 진솔하고 몰입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라디오 드라마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그래도 같이 놀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8살 아들과 어머니가 겪은 일상을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작은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아이가 또래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오해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놀자”라며 다가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공감과 이해가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

2

3

1 DJ 역량강화 편집 교육
2 DJ 정기 간담회
3 개인 방송 녹음 현장

장애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이번 작품은 제작에 참여한 DJ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며, 아이가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왔습니다. 방송을 통해 장애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며, 특정한 이야기로만 조명하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라디오 드라마라는 형식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취자가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콘텐츠로 재구성되는 과정이 뜻깊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장애 인식개선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공존과 이해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고양라디오

이번 드라마는 지난해 11월 16일(토) 오전 11시 30분, OBS 라디오 FM 99.9 MHz를 통해 송출되었습니다. 방송을 놓친 청취자는 팟빵의 ‘경인마을라디오’ 채널에서 다시 들을 수 있으며, 유튜브·팟빵 고양라디오 채널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양라디오는 이번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유통지원사업을 통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드는 데 힘쓸 것입니다.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더 많은 청취자와 만날 예정이며,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라디오가 전할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따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단체사진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설청소년·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①②③④

홀트아동복지회는 2018년부터
시설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141명의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했는데요,
1년간 힘찬 날갯짓을 펼쳐온 이들의
최종평가회 현장과 후기를 소개합니다.

글 아동복지팀 이채영·백솔·박지언

드림플러스 성과발표

런런 챌린지 최종평가회

위드유 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드림플러스 최종평가회 단체사진

행사 진행을 맡은 명예멘토 강도현 MC

시설청소년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①
'따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2018년부터 시작한 따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은 홀트아동복지회의 가장 오래된 시설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시설청소년들이 보호종료 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진로, 정서, 경제 3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선배를 만나고, 심리·정서 전문가들과 상담을 진행하는 멘토링 활동에 대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나에게 따랑새란, 자립로드맵이다."

파랑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불명확했던 진로가 뚜렷해졌습니다.
진로를 향한 지원 덕분에 꿈을 향한 도전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립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던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 통합 지원사업②
'드림플러스'

2022년부터 시작된 드림플러스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장학, 자기계발, 생활안정, 교육 및 집단활동 등 대학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7일 드림플러스 최종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성과 발표자로 선정된 김수혁 참여자의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드림플러스란, 러닝화다."

올해 광고PR학회, 대학생 공모전 연합동아리 활동,
SNS 게시글 업로드에 힘쓰며 광고 기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점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중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공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드림플러스는 제가 꿈과 성장을 향해
열심히 달릴 수 있는 동기부여이자 환경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상황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고 경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는 러닝화가 되어
주신 만큼, 저도 끝까지 달려 이 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취·창업역량강화 지원사업③
'런런 챌린지'

2021년부터 시작된 런런 챌린지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창업에 필요한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교육훈련, 자립역량강화교육, 심리정서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과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참여자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런 챌린지 누적 지원인원 64명 중 과반수 이상인 61%가 취업에 성공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2024년에는 후원사인 KB손해보험이 KB금융공익재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런런 챌린지란, 등대다."

깜깜한 바다를 빛으로 비춰 길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런런 챌린지는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자립의 과정에서
제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비춰줬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④
'위드유 커뮤니티'

2023년부터 시작된 위드유 커뮤니티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자립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 자립역량강화교육, 심리정서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드유 커뮤니티 2기는 상호네트워킹을 위한 자조모임과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인식 개선 영상 제작, 자립준비청년 에세이 발간, 시설청소년 멘토링 활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펀딩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나에게 위드유 커뮤니티란, 기회다."

자조모임을 하면서 비슷한 환경의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할 기회가 생겨 좋았습니다.
프로젝트 활동과정은 힘들었지만 팀원들과
협력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다 끝나고 결과물을 보니 뿌듯하고 성취감이 생겨
떠나보내기 아쉽습니다.

런런 챌린지 최종평가회 단체사진

위드유 커뮤니티 최종평가회 최고기여자 시상

저소득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

우리 집에 희망이가 찾아왔어요!
'희망드림 출산응원박스'

**초저출산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경우를,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 '희망드림 출산응원박스'를 기획했습니다.
전국의 '희망이' 부모님들의 후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배지수

서울 관악구, 희망이 어머니의 후기

셋째 아이를 맞이하는 두려움이 조금씩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지원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이 저희에게는 단순히 물품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주었고, 아이를 키우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순창, 희망이 어머니의 후기

집에 체온계가 없어서 아이들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 같으면 그냥 해열제를 먹였는데 이제는 체온 확인 후 약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지원해 주신 물품 덕분에 걱정 없이 아이들 낳고 잘 기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함평, 희망이 아버지의 후기

출산응원박스를 통해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기저귀 사용량이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나눔을 경험하며 사회적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희망이 어머니의 후기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정하기까지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출산응원박스를 받으니 나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미혼모에게 혼자가 아님을 알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응원박스가 많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희망드림 출산응원박스'는 KB자산운용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닌, 출산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홀트아동복지회가
전국의 희망이들을 응원합니다! ❞

준이의 단어 ‘도전’

자립준비청년들의
삶과 추억이 담긴 에세이집
《나의 단어》,

다섯 번째 이야기

《나의 단어》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 ‘위드유 커뮤니티’의 결실로 제작된 에세이집입니다. 5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세방이의순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위드유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성장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이번 에세이는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경험, 꿈과 다짐이 담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섯 청년의 힘찬 비상을 응원해 주세요.

글 자립준비청년 안준

‘자립준비청년’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한 ‘자립청년’이 되길 희망한다.

대학 4학년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지원했던 기업에서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다. 서류전형, 적성검사, 실무진 면접, 외국어 면접까지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 번에 합격한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였기에 주변의 축하 속에서 부랴부랴 아르바이트를 정리했다. 그리고 스물다섯의 나이에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안정적인 삶도 중요했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길을 걷고 싶었다. 결국, 이듬해 새로운 꿈을 위해 창업을 했다. 학생 때부터 착실히 모아뒀던 돈으로 시작한 공동창업이어서 든든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달랐다.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한 달 매출이 1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마저도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해야 했고, 점심값조차 부담스러워 도시락을 싸다니기 시작했다. 공동대표인 형은 수개월간 추운 겨울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물류창고에서 택배 상하차를 마치고 오전에 사무실로 출근하며 종종 코피를 쏟곤 했다.

지자체나 기관에서 진행하는 외부 행사에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커피 스틱과 과자를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나의 자존감도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몸과 마음이 아무리 지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외로움이었다. 함께하는 형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나의 힘든 감정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서로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지만, 그만큼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해도 기다려주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어두운 방이 나를 반겼고, 그런 날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던 중,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국내 대표 창업 플랫폼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한 것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창업교육, 투자유치, 경영전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무엇보다 창업자 간의 네트워킹을 형성할 기회를 주는 곳이었다.

그 순간, ‘이제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사업이란 끝없는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며,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다.

사업이 안정되었다고 말하기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배울 것도 많다. 때때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까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에 설렌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삶이지만, 그 자체가 내가 선택한 길이다.

창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움을 얻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믿는다.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부끄러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 숨겨져 있다. 우리는 공허함과 결핍을 숨긴 채 멀쩡한 척 연기하며 살아간다. 나는 한쪽 눈을 가리면 부모의 죽음을 목도 후 불쌍한 고아로 가난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다시 다른 한쪽 눈을 가리면 고등교육과 사회의 의무를 훌륭히 마치고 회사 생활도 경험한 꿈을 좇는 젊은 청년 창업가다. 내 안에는 결핍과 도전이 공존한다. 온전함 속에 불완전함도 함께 숨 쉰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품고 내 삶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어른이 되길 희망한다. 사회에서 이름 붙여준 ‘자립준비청년’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한 ‘자립청년’이 되길 희망한다.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준비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Re-new!

더욱 새로워진 2025년 한부모지원센터 지원사업 '365키즈키트·드림틴즈·창업학교'

한부모지원센터는 경제적 빈곤,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양육 지원, 교육·훈련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의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부모와 그 자녀에게 더욱 체계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맞아 새로워진 한부모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한부모가정 교육물품지원사업 '365키즈키트'

올해로 8회차를 맞이한 한부모가정 학령기자녀의 학습발달을 위한 교육물품지원 365키즈키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KB손해보험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한부모가정 자녀들에게 책가방, 학습교재, 학용품으로 구성된 365키즈키트를 전달해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습 발달과 꿈을 응원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학년에 따라 일괄적으로 키트를 구성하여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아이들이 원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여 '맞춤형 365키즈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가방과 학용품, 학습교재를 개인의 취향과 학업 성취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DREAM-TEENS 단체사진

한부모가정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DREAM-TEENS'

2024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부모가정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DREAM-TEENS(드림틴즈)가 오는 8월에 다시 한 번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DREAM-TEENS 2기는 세계시민학교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을 바탕으로 현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사고력과 과업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회와 현지 문화탐방 등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며 견문을 넓히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소득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창업학교 내일의 CEO'

2025년 한부모지원센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창업학교 내일의 CEO를 실시합니다. 기술과 역량이 있어도 취·창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부모들이 자신의 기술과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올 4월 모집을 시작할 창업학교 내일의 CEO는 전문적인 창업실무교육부터 1:1 창업컨설팅, 창업지원금 지급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지원합니다.

창업학교 내일의 CEO 포스터

함께 만드는 변화, 한부모의 든든한 지원군

H!-Change 협력사 '우녹스 코리아' 이정아 지사장 인터뷰

한부모자립지원사업 H!-Change는 베이킹·수공예·가죽공예 분야의 기술을 교육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첫 사업부터 지금까지 전문 강사와 커리큘럼 지원으로 H!-Change와 동행하는 협력사 우녹스 코리아 이정아 지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우녹스 코리아 임직원들

Q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우녹스 코리아와 지사장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녹스 코리아는 이탈리아 명품 오븐 브랜드의 한국 지사로 상업용 오븐을 설계·생산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레스토랑, 호텔, 베이커리 등 다양한 조리 환경에서 사용되는 오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녹스 코리아의 지사장으로서, 브랜드의 성장과 사업 확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5년 '존경받는 CEO상'을 수상하며 직원 복지와 우녹스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처음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A 홀트와의 인연은 'HOLT공유공방'에서 우녹스 오븐을 사용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홀트 관계자분께서 공유공방 '가치만듦'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고, 모두를 위한 공방에서 우녹스 오븐이 많은 분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그때부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Q 우녹스 코리아에게 'H!-Change'는 어떤 의미인가요?

A H!-Change는 우녹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녹스는 단순히 기기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까지 생각합니다. 한부모자립지원사업 H!-Change는 전문 강사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한부모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에 함께하며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나누고자 계획하신 지원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베이킹을 배우실 한부모분들께 크게 두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최고의 장비 제공입니다. 우녹스 오븐의 뛰어난 성능과 효율로 고품질의 베이킹 실습과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적인 교육입니다. 기술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실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운 기술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부모 어머님들께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매년 개강식, 수료식에 함께하며 만난 한부모 어머님들을 통해 열정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녹스 코리아' 이정아 지사장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은 이미 큰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열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꿈과 자립을 위해 우녹스도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우녹스 코리아, GPTW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션 홍보대사와 함께 달리며 한부모가정 응원해요!

션 홍보대사·CREWGHOST와 함께한 '밸런타인데이 기부런'

**올해도 션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밸런타인데이 기부런'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밸런타인데이에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3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빛섬에서 진행된 기부런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글 홍보팀장 오진희 **사진** 홍보팀 남지인

한부모가정을 돕는 뜻깊은 시간

지난 2월 14일, 션 홍보대사는 세 번째 밸런타인데이 기부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부런 참가자들은 서울시 한강 반포대교 남단 세빛섬 앞 광장을 출발해 2.14km, 4.28km 구간 중 한 코스를 선택해 달리며 한부모가정과 아동을 돕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의 참가비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홀트아동복지회로 기부되었는데요. 션 홍보대사는 모금된 후원금 114만원에 100만원의 후원금을 더해 총 214만원을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참가비를 내고 기부런에 참가한 러너들에게 션 홍보대사는 페레로로쉐 초콜릿과 파워에이드 음료를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부모가정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도 페레로로쉐 초콜릿이 전해졌습니다.

3년째 밸런타인데이 기부런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션 홍보대사는 2007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고 저소득 가정 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과희망지원사업' 후원과 한부모의 자립을 응원하는 '맘스 페스타 플리마켓' 토크콘서트 참여 등 몸소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밸런타인데이 기부런 참가자 단체사진

"션 님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기부런에 가능한 많이 참가하려고 했어요. 작년에도 참가 후 행복함과 감사함이 컸던 기억이 나 올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참가자 **정주희** 님

"학교에서 러닝크루로 활동하면서 우연히 밸런타인데이 기부런을 알게 되어 친구들과 참여했어요. 취미 활동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신학과 학생인 저에게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한부모가정과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영광이었습니다."

- 참가자 **김용국** 님

기부런의 페이서, CREWGHOST

페이서는 러너 옆에서 달리기 페이스를 유지해 주는 'Pacemaker'를 말합니다. 기부런의 진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러닝은 문화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6년 조직되어 현재 1만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오픈러닝크루인 'CREWGHOST(크루고스트)' 회원분들이 러너들과 함께했습니다. CREWGHOST는 '사회에 기여하는 러닝'을 지향하며 3년째 홀트아동복지회의 밸런타인데이 기부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션 홍보대사가 전하는 밸런타인데이 기부런의 참된 의미

션 홍보대사는 러너들에게 "밸런타인데이의 참된 의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밸런타인데이 기부런은 달리기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많은 사람에게 기부도 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한 달리기"라고 설명하며 홀트아동복지회와 한부모가정에게 응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2017년부터 션 님의 다양한 러닝기부 행사에서 자원봉사 크루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000여 명의 회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계속 러닝과 기부활동을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 CREWGHOST **신철규** 대장

션 홍보대사와 CREWGHOST 회원들

홀트대구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밀착형사업
'동네방네
친환경 구성 프로젝트'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동네친구 프로젝트'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4년 수성구청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살리기 위해 주민밀착형사업인 '동네친구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동네로 가꾸기 위한 리더 봉사자들의 활약상이 돋보였던 '동네친구 프로젝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팀 류주현

리사이클링 물품 제작

지역주민 인터뷰(어린이, 학원가)

상반기 주민공동체활동(플로깅 활동)

지역주민 인터뷰(노인, 경로당)

지역사회를 위한 친환경 첫걸음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사회가 지닌 환경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고, 지역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원룸촌과 같은 주택가에서 이런 문제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 밖에도 분리수거나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등이 언급됐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환경문제

두 번째 단계는 주민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직접 지역주민에게 환경문제나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가장 큰 환경문제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과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혼동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인식과 환경 관련 교육이 제공된다면 더 나은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리더봉사자 역량 강화 위한 환경 교육 실시

앞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에게 환경문제와 관련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분리수거, 재활용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장 많이 거론됐고,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 인식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밀착형사업에 맞게 참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리더봉사자를 모집하였고. 상반기 15명, 하반기 34명 총 49명의 리더봉사자가 모집되어 함께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주민공동체활동(환경퀴즈 실시)

하반기 주민공동체활동(친환경 부스체험활동)

이후 리더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리사이클링 체험 활동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활동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쉽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선정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지역주민 친환경 캠페인 및 공동체활동

2024년 6월 22일(상반기) 범어 2, 3동 행정복지센터, 야시골공원, 정호승문학관 그리고 11월 30일(하반기) 범어공원에서 동네친구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캠페인, 리사이클링 물품 제작(친환경 손난로, 자투리 지갑 재활용 등), 환경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오염 정도와 환경보호, 친환경과 관련된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리더봉사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보호에 함께 협력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상반기 92명, 하반기 73명 총 165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했고, 대부분 환경오염 예방 활동에 만족했습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지역사회 환경 리더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도 지역사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동네친구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4년에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지역주민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여행 프로젝트'

달서구본리 종합사회복지관

1인가구 '여'기서 **행**복하기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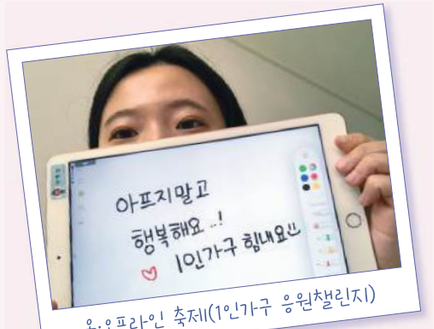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적응을 돕기 위해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3년째 복지관을 대표하는 지원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달서구 1인가구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여행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봅니다.

글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행복이룸과 권민경

1인가구 우리마을체험단

혼자 살지만 같이 사는 삶

여행 프로젝트는 1인가구가 직면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인가구를 무조건적인 도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식하여 그들을 지역사회에 융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과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1인가구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축제(1인가구 응원챌린지)

> 항상 받기만 했는데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매달 1인가구 활동하는 날만 기다려요~ 정말 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속 가능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했습니다. 달서구 거주 1인가구를 위해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복지, 정책, 요리,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마을멘토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유로운 소통도 이뤄졌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1인가구들이 마을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의 든든한 지원군 '1인가구연계협의체'

1인가구의 성공적인 적응과 사회관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달서구 관내 7개 기관(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달서소방서·달서구가족센터·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본리동행정복지센터·성서경찰서 성당파출소)이 힘을 합쳤습니다. 1인가구연계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협력하며, 사례 의뢰 및 자원 연계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해피홀로데이 1인가구 축제'를 공동 개최하여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호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인가구 우범지대 마을 순찰활동

1인가구연계협의체 간담회

1인가구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비대면 정보 공유에 이어, 대면 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5명의 참가자들에게 정리수납 2급 자격증 과정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4명의 참가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1인가구 소그룹 모임 활성화를 위한 '1인가구 소그룹 모임 지원사업'을 통해 3명씩 총 5개의 소그룹이 형성되었고 영화 관람, 장보기,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지역사회 내 생활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며 1인가구들 간의 정서적인 지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 받고 도움 주는 삶

2022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1인가구 여행 프로젝트는 '1인가구 우리마을 탐험대'라는 모임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마을멘토 10명과 1인가구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인가구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 1인가구 발굴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협의체 기관과 협력해 1인가구 우범지대 마을 순찰활동과 소화기 나눔 등 안전한 삶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우리 마을에 소속감을 느끼고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본리 복캉스데이(복지관 바캉스)'를 개최하여 경제교육, 요리교실, 건강체조, 공예체험 등의 문화 여가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1인가구들 간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행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사회적 연결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하며,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에도 계속해서 1인가구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지원하고, 1인가구가 자신의 지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네팔 여성의 빛나는 내일 ‘WAWCAS’

엄마의 자립과 아동의 행복을 지켜주는 WAWCAS 프로그램

네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응원하며 홀트아동복지회는 2019년부터 네팔 코커나에 위치한 로컬 NGO인 SLISHA와 함께 아동교육 및 보호사업과 더불어 여성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모든 여성들의 더 빛나는 내일을 지원하는 WAWCA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글 국제개발협력팀 이소민

1

네팔 여성자립지원사업, WAWCAS

홀트아동복지회는 네팔 빈민가정 아동들을 위한 전문적인 현지 사업을 실시하고자 네팔의 로컬 NGO인 SLISHA와 MOU를 맺었습니다. SLISHA는 네팔의 여성, 아동, 영유아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아동 및 여성의 권리증진, 성 인지 발달, 아동 발달, 청소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500명의 아동을 지원하였고 2023~2024년 2년간 네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약 1,841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중 약 903명의 사업 순수익이 약 37.5% 증가하며 소득률 상승을 이루었고 약 935명이 추가로 지원받는 선순환을 이뤄냈습니다.

WAWCAS 프로그램은 ‘Women at Work Children at School(엄마는 일터로, 애들은 학교로)’이라는 취지에 맞게 네팔에서 심각한 빈곤에 처한 여성 대상 소액대출, 경제적 자립 교육과 더불어 아동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성들에게 소액대출 서비스 및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활발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인권 및 권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동들에게는 지적 능력 향상 및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들의 자존감 결여를 방지합니다.

2

3

4

5

여성연대를 통한 여성과 사회의 동반 성장

WAWCAS 프로그램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가 경제적 자립의 뿌리가 되는 것을 알기에 이를 통한 자존감 향상, 책임감 고취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여성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 WAWCAS는 한 개인의 지원을 넘어 여성연대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룬 여성이 갚은 대출금을 또 다른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출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연대가 건강한 사회를 형성합니다. 결국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대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입니다.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

WAWCAS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주로 8~14세 연령대로, 2024년 약 372명의 아동을 지원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지식 향상,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이 갖고 있는 특별한 권리에 대한 교육,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WAWCAS를 통해 얻은 행복

“저는 주로 일용직으로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제 삶은 고난과 역경이 많았고 돈이 부족해 밥 먹는 것조차 전쟁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홀트아동복지회와 네팔 SLISHA가 제공한 소액대출과 교육을 통해 제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제 나이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교육을 들으며 의지와 자신감만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SLISHA의 지원으로 저는 네팔 간식(파니푸리&차나차트 파테)을 만들어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다른 메뉴들을 추가하기 위해 대출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미래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와 자신감을 준 홀트아동복지회와 SLISHA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Bimala(참여 여성)

“저는 Shree Namuna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수학이랑 엑셀은 아주 좋아하는데 영어는 제일 약한 과목이에요. 매일 학교가 끝난 이후에 저는 SLISHA로 가요. SLISHA에는 공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SLISHA에서 숙제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안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엄마가 SLISHA의 도움으로 채소장사를 시작하면서 제 삶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게 생긴 이 변화가 너무 좋고 행복해요! 엄마가 더 오래 홀트아동복지회와 SLISHA랑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 Roshan Shah, Child Group member, Rutahan(참여 아동)

1 네팔 WAWCAS 프로그램 활동
2·3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WAWCAS 프로그램 참여자
4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WAWCAS 프로그램 참여자
5 WAWCAS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 중인 네팔 여성들

텅 빈 집에 홀로 남게 된 초원이의 하루

위기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위기가정지원 캠페인

엄마 아빠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10살이 된 초원이(가명)는 아픈 부모님의 잦은 입원으로 인해 하루를 홀로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다발성통증 증후군,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초원이의 엄마와 지체장애 및 척추염, 목 디스크로 통원치료를 반복하는 아빠는 홀로 있을 아이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진통제도 소용없을 만큼 심해진 건강악화로 결국 입원하게 되었고 초원이는 다시 쓸쓸한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초원이의 아픔

잦은 부모님의 입원으로 인해 보살핌이 사라진 초원이는 한창 성장할 시기지만 결식으로 인한 영양결핍으로 아데노이드, 낭종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루푸스, 류머티즘)이 발병했습니다. 결국 10살 초원이마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부모님의 병원비가 연체되었고 초원이의 치료 또한 중단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초원이에게는 지속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초원이네는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근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현재 수입은 오로지 기초생활 수급비가 전부입니다. 공공요금 및 주거비 미납은 일상이 되었고 결국 초원이의 집은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수술 치료를 받았던 초원이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극심한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초원이와 가족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을 함께 지켜 주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10명 중 1명은 돌봄의 공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초원이처럼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나눠 주세요.

글 나눔기획팀 이예림

위기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절실합니다.

초원이 후원하기

※ 본 캠페인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가명 및 대역 촬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업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합니다

KB손해보험

기업사회공헌 파트너 후원사 'KB손해보험'

글 나눔기획팀 옥지희

미혼한부모가정 아동지원 후원금 전달식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

홀트아동복지회의 기업사회공헌 파트너 KB손해보험은 2014년부터 '아동의 생명을 365일 건강하게 지킨다'라는 취지 아래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365베이비케어키트'에서부터 미혼한부모 학령기 자녀들을 위한 학습키트 '365키즈키트',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런런 챌린지', 이와 연계된 자립준비청년 풋살구단 '런런 FS'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정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확장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4년 KB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특히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런런 챌린지'는 상생과 돌봄 두 축으로 운영되는 KB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여 지원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런런 챌린지 5기 오리엔테이션

런런 챌린지 지원사업의 확장, 런런 FS

2021년부터 5년째 진행하고 있는 런런 챌린지는 지난해 신규 사회공헌사업으로 '축구'라는 관심사를 가진 자립준비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풋살구단 런런 FS를 운영했습니다. 런런 챌린지 3기 지원 대상자로 축구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신민규 감독이 팀을 이끌며 15명의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런런 FS 창단식

2024년 제4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

착한 기부자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은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나눔 실천에 앞장선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KB손해보험은 홀트아동복지회의 추천으로 2024년 제4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공모에서 미래의 희망인 '아동'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KB손해보험 임직원, 자립준비청년들의 키다리아저씨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창업 지원사업 '런런 챌린지'는 KB희망나눔기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80% 이상이 참여하는 KB희망나눔기금은 KB손해보험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자율적으로 기부한 기금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 기부하여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머니의 참견'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후원사이자 사회공헌의 좋은 파트너로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KB손해보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임직원의 ‘My Marriott Day’

지난 3월 21일, 홀트아동복지회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6층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메리어트 임직원 50명이 참여하여, 한부모의 자립을 응원하는 가죽공예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작업하는 그녀’의 장미나 대표와 안순화, 이한나 강사님이 함께했으며 참가자들은 카드지갑을 제작하며 한부모의 자립을 응원했습니다.

글 나눔기획팀 황태우·최주영

신미숙 회장님의 환영사

한부모 자립을 응원하는
가죽공예 원데이클래스

카드지갑 만들기에 열중하는 메리어트 임직원들

완성품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는 참가자들

인연의 시작, 9년간 이어온 따뜻한 동행

홀트아동복지회와 메리어트의 인연은 2017년,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지점과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온수 보일러 교체 및 덱 길 공사를 지원하며, 미혼한부모 가정에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고, 이후 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점과도 협력해 ‘오리레이스’, 여성봉사단 ‘우먼인리더십’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와 신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위기가정아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메리어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머그컵 수익금 기부, ‘Run to Give’ 기부런 등을 통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메리어트 16개 지점이 협력해 국내 위기가정아동 152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위시트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메리어트 임직원들의 정성 어린 선물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메리어트가 한부모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My Marriott Day’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메리어트 임직원들은 직접 만든 카드지갑을 통해 한부모 가정을 향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전했고, 서로 협력하며 뜻깊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9년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가 한부모 가정의 자립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임영진 위원님은 2024년 10월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제4회 자랑스러운 신경외과 의사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의학자입니다. 2010년 탑리더스로 위촉되어 누적 5,000만원을 후원하여 아동과 가정을 돕는 일에 함께하는 귀한 홀트 가족을 만나봅니다.

글 나눔지원팀장 권혜란·홍보팀 정진숙

섬김과 겸손의 의학자
임영진 교수가 말하는 참된 사랑

경희대 의대 명예교수 탑리더스 임영진 위원의 '사랑을 행동으로'

탑리더스 임영진 위원과 홀트아동복지회 김경희 이사 부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欲爲大者 當爲人役, 마태 20:26)는 임영진 위원님의 신념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겸손과 섬김, 공정함을 실천해 왔습니다. 임영진 위원님은 1987년 경희의료원 신경외과 교수를 시작으로 대한감마나이프 학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경희대학교병원장,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팀닥터 및 의무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의학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ROTC중앙회 보건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장을 퇴임한 후에도 3년 6개월간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직을 수행하며 병원의 인증률 제고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지금의 임영진 위원님에게 의사는 분명 천직이지만, 그 여정은 남들보다 길고 특별했습니다. 배재고를 나와 연세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하고, ROTC로 군복무를 마친 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는데, 그가 의사의 길을 택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축구를 사랑하며 우상으로 삼았던 이회택 선수를 만나고자 '국가대표팀 팀닥터'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영진 위원님은 15년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팀닥터로 활약하는 뜻을 이루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팀닥터로서 해외 경기에 동행하던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이회택 선수와 나란히 앉게 되며, 자신을 의학자로 이끌었던 인물과 영화 같은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탑리더스 임영진 위원 가족사진

내가 가진 달란트, 봉사의 사명

임영진 위원님은 국내 뇌수술 분야에서 '감마나이프' 시술의 개척자이자 국내 최초로 삼차신경통 환자 치료에 방사선 수술을 시행한 권위자입니다.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이 신경외과 질환의 치료 영역으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퇴임 후 경희의료원 감마나이프 자문 교수로서 후배 교수들과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뇌수술 환자 재활전문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진료로 재능 기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

임영진 위원님은 외조부님부터 손주들까지 5대에 걸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공직에서 헌신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집안에서 아내 홀트아동복지회 김경희 이사님과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임영진 위원님의 탑리더스 활동도 38년간 홀트아동복지회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헌신한 김경희 이사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임지은, 임승훈 두 자녀 모두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입니다. 특히 아들 임승훈 님도 신경외과 의사로 경희대 병원에 재직하며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지요. 명예와 자긍심도 크고 존경도 한몸에 받지만 정말 힘든 과정임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하지만 제가 전공을 신경외과로 선택했을 때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아들도 제 좋은 점을 보고 마음먹었으리라 이해하며 우리나라 신경외과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사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에게 받은 사랑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의사라는 자부심과 보람도 있지만 무엇보다 의술로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실천하는 홀트의 후원자로서 나눔의 뜻을 펼칠 수 있음에 매우 기쁩니다."

임영진 위원님은 평소 좋아하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 중 '저게(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는 구절을 언급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야 내공이 단단해지고 한층 더 성장합니다. 삶이 늘 평안하길 기대할 수 없기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마다 설립자 해리 홀트 부부가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홀트 가족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나눔의 본보기로 살아가는 기쁨

지난해 12월 23일, 고액후원자 탑리더스로 위촉된 시티핸즈캄퍼니 대표 유해연 위원님은 누적 후원 1억원 달성뿐 아니라 후원자들에게 전하는 굿즈 제작 물품 후원도 함께하는 든든한 홀트 가족입니다. 입양가족 자조모임 '홀트한사랑회' 2, 3대 회장으로 봉사하며 기독교인으로서 아동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유해연 위원님의 나눔 활약상을 소개합니다.

글 나눔지원팀장 권혜란

시티핸즈캄퍼니 대표
탑리더스 유해연 위원의 나눔 이야기

유해연 위원의 탑리더스 위촉을 축하하는 아내 이덕희 님 및 홀트 직원들과 함께

마중물 역할에 앞장서다

유해연 위원님은 아웃도어 용품 수입·유통 전문회사인 시티핸즈캄퍼니를 운영하며, 해외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리테일러에게 공급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제품이지만 일상에서도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아이템에 집중해 제품을 집중 소싱하며 꾸준히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티핸즈캄퍼니가 추구하는 가치처럼, 유해연 위원님의 나눔활동 또한 홀트아동복지회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마중물이 되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명예 멘토로 산악인 김영미 씨를 추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해온 대한민국 대표 히말라야 산악인 36명 가운데, 김영미 씨는 남극점을 무지원으로 단독 도보 횡단한 기록을 가진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입니다. 청년들에게 '도전'과 '용기'의 가치를 전해주었고, 클라이밍 체험은 가장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홀트아동복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내 위기가정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인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를 시작하는 첫해이기도 했습니다.

"5,000만원의 기부금이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전달돼 소외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습니다."

현재 4년차를 맞이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사업은 수많은 후원자를 통해 긴급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나눔 실천

유해연 위원님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서 진행된 한부모가정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DREAM-TEENS' 봉사활동의 후원과 함께 단장으로서 직접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해연 위원님은 봉사 기획 준비 모임에 산악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가장 먼저 도착해 단원들을 맞이했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식품회사의 베트남 지사장 근무 시절 현지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단원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매일 시원하게 얼린 버프 목수건을 아이스백에 담아 휴대하며 단원들을 챙겼고, 직접 만든 레몬탄산 음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드림틴즈는 유해연 위원님을 통해 배운 사랑을 세계로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 중인 환경보호를 행동으로!

유해연 위원님은 산악인의 꿈과 함께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소중함을 키워 왔습니다. 젊은 시절, 전문 등반 활동을 시작하며 아름다운 산과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고 설악산 한계령에 건설 예정인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설악, 산양의 땅 사람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해 캠핑장 인근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일회용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사용 장려 캠페인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일회용기 사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식기류들을 임대하는 'borrow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유해연 위원님은 "지금도 제 가방에는 개인 숟가락, 젓가락, 빨대, 개인 물병을 갖고 다니며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유해연 위원님은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과 마음가짐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강한 자연환경과 직결된다며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홀트가 하면 다르다'는 평가가 늘 따를 수 있도록 고액후원자로 서포터즈 역할을 해내겠다는 유해연 위원님은 홀트가 요즘 대세인 '이모카세' 식당 같은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고액후원자 탑리더스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나눔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유해연 위원님과 나눔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드림틴즈' 파견식에서 축사 중인 유해연 위원

아웃도어 용품 수입유통회사 시티핸즈캄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유해연 위원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진
나눔과 사랑

전영옥 후원자님(메디아이여성병원 임상영양사)은 홀트아동복지회의 대표적인 장기 후원자입니다. 39년 전부터 나눔을 실천해 온 어머니를 보며 자란 딸 이예종 후원자님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어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며 자연스럽게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녀의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글 나눔지원팀장 권혜란·홍보팀 정진숙

전영옥·이예종
모녀 후원자가 전하는
|
39년 나눔 이야기

후원자 모녀가 서로에게 배운 삶의 의미

"저는 자라면서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혼자 다 써 본 적이 없어요. 좋은 브랜드의 운동화나 학용품을 받으면 어머니께서 그대로 보육원에 갖다주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없이 시설에 사는 학급 친구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친구를 생각하여 준비물, 우유 급식, 소풍 도시락을 꼭 두 개씩 챙겨주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나눔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지만 자라면서 어느새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 이예종 후원자님은 자신의 일부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이예종 후원자님은 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13년간 홀트아동복지회를 후원하며 어머니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전영옥 후원자님은 "물질적 후원도 중요하지만 예종이처럼 직접 현장에 가서 봉사를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딸에게 배우는 것이 많다"라며 "홀트아동복지회 후원 외에도 해외아동 후원과 봉사에 뜻이 있어 외부 특강비나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내 및 국제구호기관,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봉사활동을 갔던 곳의 아이들을 위해 고스란히 전하는 것을 보며 내 딸이지만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전영옥·이예종 모녀와 린다백 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전영옥 후원자님과 홀트의 첫 인연

전영옥 후원자님이 11살이었던 1960년대, 골목길에서 마주한 TV 속 외국인이 참 특별하게 기억됩니다.

"대한뉴스에서 한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 고아를 위해 헌신하는 방송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나중에야 그분들이 바로 홀트아동복지회 설립자 해리 홀트 부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전영옥 후원자님은 산업체 영양사로 일하면서 1980년대 중반 홀트일산요양원에 동료 영양사들과 업무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홀트 직원들이 채소를 직접 재배해 납품하며,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도와 생활하는 모습을 본 후 바로 후원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후원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TV로 보았던 곳이 홀트일산요양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운명처럼 생애 첫 후원을 하게 된 것이 제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후원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홀트아동복지회

전영옥 후원자님은 홀트아동복지회가 후원을 지속하는 원동력이자 나눔의 3가지 철칙을 실천하는 통로라고 합니다. 그 철칙은 첫째, 후원은 보는 즉시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 내일이 되면 마음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둘째, 일단 시작하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는다. 후원을 못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때 그만두면 된다. 셋째, 정기후원을 시작했다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전영옥 후원자님은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지속적으로 후원할 의지도 생기는 것"이라며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후원금 납부는 꼭 은행에 가서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멈추지 않는 나눔의 열정

전영옥 후원자님은 나눔에 대한 굳건한 소신으로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이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영양사로 30년 근속한 직장에서 정년 은퇴 후 다시 19년간 임상영양사로 일하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 "끊임없이 후원하라는 뜻인 것 같다"라고 덧붙입니다.

"저만의 나눔 철학은 돈이나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빌려 쓸 뿐, 필요한 것 외에 남는 것은 무조건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영옥·이예종 후원자님의 아름다운 미소만큼이나 따뜻한 나눔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녀 후원자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과 가정을 더욱 든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본부

강성만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이사, 탑리더스 위촉

2월 6일, 강성만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이사의 탑리더스 위촉식 및 1,000만원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성만 이사는 현재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및 고양보호작업장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생활체육과 자립을 지지하고 장애인 복지 발전에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성만 이사의 뜻을 새겨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되겠습니다.

본부

김택환 ㈜화성이엔지 대표이사, 탑리더스 위촉

2월 10일, 전기전자 소방설비 전문업체 ㈜화성이엔지 김택환 대표이사의 탑리더스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꿈과희망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약정 후원한 김택환 대표이사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꿈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후원 계기를 밝혔습니다. 후원금은 위기가정아동들의 교육비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본부

고재완 리치코리아 회장, 탑리더스 위촉

2월 10일, 한식 전문 외식기업 리치코리아의 고재완 회장의 탑리더스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리치코리아는 24개 지점에서 중소상공인 정기후원 캠페인 '홀트패밀리샵' 후원을 통해 누적 후원금 1억 6,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고재완 회장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돕게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의 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부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 '홀트, 세움' 시상식 개최

2월 28일, 2024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그림 공모전 '홀트, 세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기후위기 속에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사회인식 확산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을 비롯해 총 13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대구지부

약목중앙교회, 지킴이키트 후원 릴레이 캠페인 첫발

1월 13일, 약목중앙교회(담임목사 박종환)가 대구지부와 협력해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지원하기 위한 '지킴이키트 후원 릴레이 캠페인'에 첫 번째 후원자로 동참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킴이키트 후원 릴레이 캠페인'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위기에 놓인 미혼한부모 가정에 지킴이키트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개인과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청지부

대전온누리교회, 응급위기 취약계층 위해 후원금 전달

1월, 대전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상수)가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전온누리교회는 2024년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온누리 나눔상자' 30박스를 후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홀트일산복지타운

자립 퇴소자 설맞이 홈커밍데이 개최

1월 24일, 퇴소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홀트타운 자립생활 관계망발전 홈커밍데이'를 개최했습니다. 결혼과 취업으로 자립한 퇴소자들에게 친목 도모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화 서비스 및 지속적인 관계 형성 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사로 1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양보호작업장

일본 효고대학, 고양보호작업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

2월 18일, 장애인 복지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를 위해 일본 효고대학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현원화 고양보호작업장 원장과 후원자인 최아랑 아랑산업 대표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인 복지 발전과 사회복지 교류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표단은 간담회와 함께 자원봉사활동도 진행했으며, 두 기관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홀트학교

꿈과 행복의 새로운 출발, 홀트학교 입학식

3월 4일, 장애학생들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홀트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신입생은 유치원 과정 2명, 초등교육 12명, 중등교육 12명, 고등교육 13명, 전공과 14명으로 총 53명이 입학했습니다. 신임 교사들의 축하공연, 선배 학생들의 환영인사, 학부모 대표의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김정민 교장은 "장애를 넘어 모든 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5 설맞이 '효(孝)드림' 행사

1월 21일, 파라다이스복지재단과 함께 설맞이 효드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파라다이스복지재단에서 떡국 150인분과 명절 선물세트를 지원하여 독거 어르신 26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의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떡국과 반찬 포장 및 선물을 전달하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정서를 지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준사례관리자 양성프로그램 '허브' 5기 발대식

2월 14일,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준사례관리자 양성프로그램 '허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사례관리 대상자 및 종결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 사례관리교육을 통해 예비 사회복지사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 후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사업 본격 시작

2월 12일,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관식이 실시되었습니다.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관식에는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을 비롯해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이훈규 아이들과미래재단 이사장 외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아침뜰

자녀와 함께하는 딸기 따기 체험

2월 27일, 봄방학을 맞이한 자녀들과 함께 딸기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상큼한 딸기 향으로 가득한 농장에서 자녀와 함께 뛰어놀고 딸기를 따며 엄마와 아기가 더욱 친밀하게 교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나들이에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기지개를 켜며 엄마들과 아이들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운뜰

수원중부경찰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3월 11일,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고운뜰에 방문하여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입소자들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접하면서 열심히 경청하고 질의응답에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예방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클로버

유아 미술 프로그램 '미술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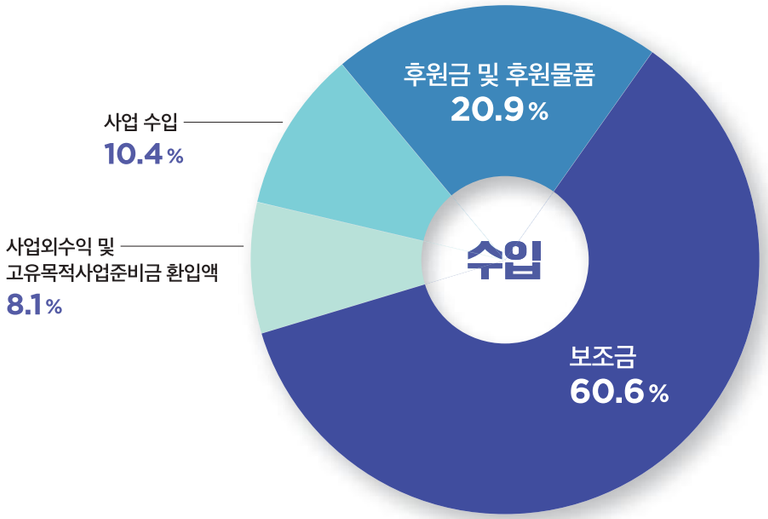
2월 25일, 봄방학을 맞아 유아 미술 프로그램으로 '미술 퍼포먼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서 안정 효과는 물론, 인지적·신체적 발달을 도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체험하는 동안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활동에 온전히 몰입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광주클로버

한부모가족의 '하하호호 데이트' 나들이

1월 18일, 모자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 '하하호호 데이트'를 담양의 테테루 테마파크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처음으로 눈썰매를 타보며 짜릿한 경험도 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함께 웃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고, 힐링의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2024년 운영결산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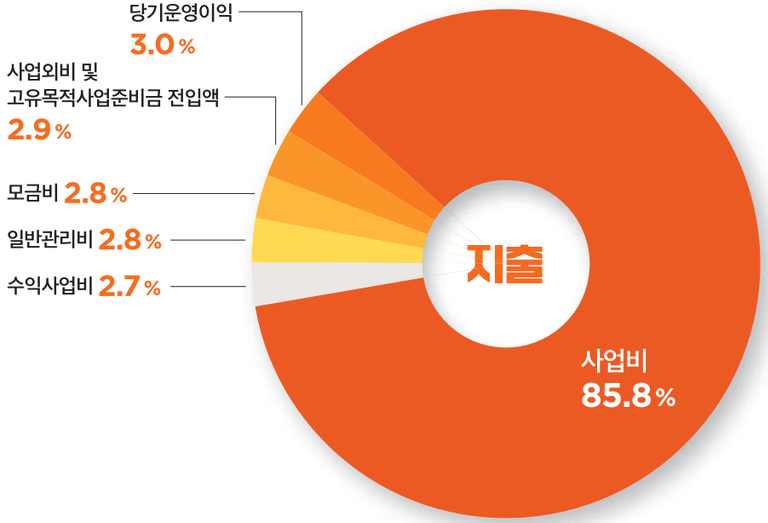
2024 수입 합계

총 84,217,982,285원

수입 세부 내역

구분	내용		금액(단위 원)
후원금 및 후원물품	후원자·단체·기업 등의 정기·일시 납입 후원금 및 후원물품		17,574,976,329
세부내용	아동·청소년복지	국내·외 아동·청소년 지원 후원금	11,776,338,001
	장애인복지	장애인 재활·치료·자립 지원 후원금	1,381,522,987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지원 후원금	1,419,450,671
	한부모가족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후원금	609,428,266
	가족복지	가족복지 지원 후원금	62,623,300
	후원물품	개인 및 기업의 후원물품	2,325,613,104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51,042,453,048
사업 수입	사업 수입		8,769,475,796
사업외수익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이자 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6,831,077,112
합계			**84,217,982,285**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5항(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제50조 3항(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에 따라 국세청에 공시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고 있습니다.
- 연1회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2024년도에는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할구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재정운영을 검증받으며 투명한 회계관리 및 성실한 사업보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 지출 합계

총 84,217,982,285원

지출 세부 내역

구분	내용		금액(단위 원)
사업비	국내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진행 등		72,322,452,603
세부내용	아동·청소년복지	국내·외 아동·청소년 양육, 의료, 자립 지원 등	11,147,509,085
	장애인복지	장애인 재활·치료·자립 지원 등	26,065,382,205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지원, 사례관리 지원 등	17,211,061,753
	한부모가족복지	한부모가족 생계, 아동양육, 자립 지원, 거주시설 지원 등	2,904,716,195
	가족복지	가족복지 지원 등	1,679,641,479
	보육·교육	장애인 특수학교, 어린이집 지원 등	13,314,141,886
모금비	모금 기획 및 관리 운영, 후원 서비스 제공 등		2,333,427,959
일반관리비	사업 기획 및 수행을 위한 운영 관리비 등		2,326,357,262
수익사업비	수익사업 운영 등		2,262,062,502
사업외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사업외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등		2,443,036,455
당기운영이익	당기운영이익		2,530,645,504
합계			**84,217,982,285**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집니다

국내후원
위기가정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한부모가정과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해외후원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4개국 4개 해외사업장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결연후원
향기 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국내·외 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기회를 지원합니다.

고액후원
다양한 기부활동과 봉사로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가 되어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합니다.

기업후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협력사업(수익 기부, 지원사업 공동기획, 임직원·고객 참여 캠페인, 공익연계 마케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합니다.

교회후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회가 이웃과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갑니다.

특별한 후원
생일, 첫돌, 결혼, 취업, 출산, 팬덤 등 특별하고 소중한 날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념일 캠페인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후원합니다.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휠체어농구단 장애인 지원 캠페인

RE:PLAY

멈춰버린 장애인의 삶이
다시 움직이도록
함께해 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농구공 그립톡과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눔기업입니다.

You see steam.
We see...

NATURAL TECHNOLOGY

스팀은 친환경적이며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유체는 다양한 핵심 산업에서 효율 높은 도구이며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의 관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팀이라는 이름만으로 스팀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스팀은 Natural Technology입니다.

spirax sarco 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 www.spiraxsarco.com/global/kr

■ 본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30길 99 스팀피플하우스 TEL.(02)3489-3489 ■ 공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27 TEL.(032)820-3000
■ 인천영업소 : TEL.(032)820-3050 ■ 서부영업소 : TEL.(031)366-0303 ■ 전주영업소 : TEL.(063)226-1408 ■ 여수영업소 : TEL.(061)686-5755
■ 경남영업소 : TEL.(055)332-5755 ■ 울산영업소 : TEL.(052)258-5744 ■ 대구영업소 : TEL.(053)382-5755